

# 시설·행사지원 중점 편성

## 주요종단 내년예산 1백억원이상 확정

조계 태고 진각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의 97년도 예산이 1백억원대를 넘어서 내년 불교계의 포교 교육 및 각종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은 지난 27일 제124회 임시총회에서 일반회계를 지난 해 보다 35.3%(증가된 1백30억7천8백만원, 특별회계 58억5천2백만원 등 총 1백89억3천7만4천원)을 확정 통과했다. 태고종도 이날 97년도 예산 1백6억1천3백만원을 확정했다.

이에앞서 진각종은 10월30일 정기총회에서 새해 예산을 1백10억원으로 확정하고 사업안

을 발표했다. 예산으로 나타난 각종단의 내년 주요 사업은 불교회관, 심안단련장과 불교대신설등 시설 지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계종은 종단의 숙원사업인 불교종합회관건립(45억원)과 중앙승가대 이진(50억원)에 예산의 절반가량을 책정하고있으며 태고종도 대부분의 예산을 동방불교대 개교(1백억원)와 용궁사상영화를 위해 확보해놓았다.

또 진각종도 중국 연길시에 해동심안단 신축과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조계종은 내년 문화유

보교TV는 오는 8일 부터 14일까지 프로그램공급사업의회(회장 윤기선)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공급사업 시청률 조사에 대비, 주주는 물론 지난 케이블TV설치비 50% 할인행사를 통해 가입한 시청자들과 사할 등을 대상으로 불교TV시청률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내년도 수신료 배분에 중

## “채널32 불교TV를 봅시다”

신신료 배분 근거 8~14일 시청률 조사

요 근거자료로 사용될 이번 시청률조사는 전국의 7~8개 지역방송국(SO)에서 기계식 플럼모드방식(쌍방향 상하대역 이용)에 의해 조사된다. 조사대상 SO는 강서 동강 양천의 서울지역 SO와 각 지방별로는 부산의 금정 대구의 수성 대전의 한밭 광주

사할과 불자등 고정시청자들

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불교TV의 경우로 단일주요간의 조사자료로 채널 선호도가 결정되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TV를 보지 않을 경우라도 컨버터를 채널 32에 맞춰 놓으면 시청률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고정 시청자들에게 홍보하는 등 시청률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진안군 임수진군수는 지난 11월 28일 마이산탐사에서 실사를 실시하던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 “탐사는 절이 아니기때문에 탐군은 군소유이다”며 “대중전 산신각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있다. <본지 104호참조>

## “마이산탐사 절 아니다” 억지

진안군수, 국민고층처리위 실사과정서 밝혀

이에대해 탐사주지 왕선스님은 “1백20년된 사찰을 폐사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산문폐쇄도 불사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이산 탐사의 제소로 이루어진 이날 실사에서 국민고층처리위는 진안군의 탐사 철거지서와 사할관람료 예치금 미지출에 대한 탐사의 고

## 불교 카톨릭 개신교 원불교 인천 종교협 3일 결성

불교 카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의 연대기구가 서울에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에도 결성됐다.

## 지방소식

가운데 창립된 인천지역 종교인협의회는 교단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성직자들의 뜻을 모아 이루어 졌다.

한편 인천종교인협의회에는 불교대표로 선일스님(인천 부르나포교인장)과 일지스님(능인사주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계종 회관건립·승가대 이전에 절반

## 태고종 동방불교대 개교 100억원 책정

## 진각종 창종 50주년 사업·교양대 치중

계종 포교원(14억6천만원)은 전년에 비해 5.2%를 증액, 재적사찰 및 신도등록확충화, 청소년 군법당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태고종은 종단연합합창단 창

## 대구BBS 개국 이후 지역불자 방송참여 ‘붐’

불교대구방송이 지난 11월 11일 개국됨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불자들의 불교방송프로그램 참여가 눈에 띄고 있어 대구경북지역의 교세를 대변하고 있다.

불교방송의 오후 인기프로그램의 하나인 ‘퀴즈대장경’의 경우 교리퀴즈에 참여하려는 대구지역 불자들의 전화가 쇄도해 현재 2주분의 참가자가 대기상태라고 담당 안희경PD는 전하고 있다.

또 불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사매거진’의 열린 전화코너에서는 첫 전화신청자가 대구지역불자였다는 것. 퀴즈대장경에 출전을 신청했다는 김보연화씨(대구 신천동)는 “방송에 참가하기 위해 불교교리도 새로 공부하고 있고, 시간날 때 마다 불교방송을 경청한다”고 말해 지역불자들의 반응을 실감나게 한다.

이밖에 교리상담프로그램인 ‘자비의 전화’ 등 불교방송의 각종 프로그램에서 대구지역불자들의 참여를 느낄 수 있다. 대구지역 개인택시 정비회 김주봉회장은 “불교대구방송의 개국으로 방송포교의 위력과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방송내용과 기술적인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칭찬소감을 밝혔다.

프랑스에서 불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레스프레스>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불교신자가 60만여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0~40대 중반의 프랑스인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층, 따라서 프랑스의 불교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레스프레스>는 분석했다.

부르고뉴 지역에 세워진 유럽 최대 규모의 티벳불교 사원을 비롯해 총 80여개의 선원이 개원된 프랑스에서 현

마를 향한 프랑스 불교신자의 신드롬은 더욱 뜨겁다. 달라이 라마가 지난 10월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의 TV와 신문은 앞다퉈 그의 대담을 보도했고 4천여명의 프랑스인이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듣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 그의 저서 <불교의 힘>과 <삶과 죽음에 관한 티베트식 사고> 등은 서점가에서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다.

60년대 말부터 조금씩 프랑스사회에 불기 시작한 불교 열기의 이유를 <레스프레스>는 “개인주

## 신도 60만명추정... 80여 선원 개설

## 달라이라마 초청법회에 4천명 몰려

재 거세게 일고있는 불교열풍은 국영 프랑스 2TV 방송이 내년 1월부터 일요일 아침에 ‘부처의 목소리’란 불교의식을 매주 방영한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유럽불교대학 개설 계획 그리고 ‘베어’ ‘연인’ 등을 감독해 프랑스 거장으로 자리잡은 장자크 아노 감독이 불교영화 <티벳에서의 7일>을 촬영하는 등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종에서 달라이 라

## 역사학계 표절시비

가요계·미술계에서 자주 뉴스거리가 되어 온 표절시비가 역사학계에도 일고 있다.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책은 한국역사연구회(회장 박종기)가 <역주 나말여초 금석문>을 펴낸(김영미 이대교수 외 10명)이 펴낸 <역주 나말여초 금석문>(해안 권).

역사학계를 포함한 국학계는 촉망받는 소장학자가 주축이 된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였던 역사연구회가 표절시비에 휘말린 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법륜사 대웅전 낙성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지난 11월 21일 경내에서 덕암스님(태고종림 선암사법장) 지허스님(선암사주지) 상명스님(심정사주지)등 20여스님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낙성 및 부처님절인법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덕암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오신뜻은 모든중생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다”며 “모든 사부대중들이 율령정진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의 뜻을 기르자”고 말했다.

부부는 선행연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기존 역주작업의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학문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학계는 표절시비가 어떻게 결론나는 진보사학의 선두주자를 자임해 온 역사연구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성 사학계의 고루한 풍토를 비판하면서 세력을 키워온 신진학회가 ‘관행이었다’는 변명으로 표절의 화살을 피해가더라도 ‘뒤 물은 개가 뒤 물은 개를 나무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M-TV 드라마 ‘1961년생’

## 황영조씨 깜짝 출연

마라톤러 황영조씨가 오는 12월 6일 밤 9시50분 MBC TV를 통해 방송될 창작특집 코믹 드라마 ‘1961년생(연출 김승환)’에 실명 그대로의 육상선수 ‘황영조로 대사항마디 없이 단 한 장면 깜짝 출연 한다.

MBC가 라디오극을 출범시킨 61년에 태어난 한 남자의 삶을 현대사에 대비시킨 이 드라마는 ‘이리억 폭발사고’ ‘서울의 봄’ ‘88서울 올림픽’ 등 역사적



사건들을 코믹하게 풀어간다. 이 드라마에서 황씨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둔 시점으로 돌아가 훈련의 고통을 금메달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내는 한국판 포레스트검같은 마라톤러로 등장, 주인공인 개그맨 김국진씨와 마주쳐 스텝 지나가는 장면을 연기한다.

###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들을 완벽히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청담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 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더해드립니다.
  -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 통신 사용자들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불교 TV, CA-TV 광고 및 CF제작
- 홍보영화제작
  - 살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할 21세기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중계 촬영
  -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멀티뷰
  -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 B/D 202호
- 전화 : (대)02)737-8881/(직통)02)305-9320
- 팩스 : 02)375-4143

**현대프로덕션 HYUNDAE PRODUCTION**